

“홍어 맛보러 오소” 나주시, 5월 5~7일 영산포 홍어축제 개봉박두



“막힌 코가 뻥 뚫리는 알싸한 그 맛” 남도 대표 음식인 숙성 홍어의 대항연이 홍어의 본고장 나주 영산포에서 펼쳐진다. 나주시는 어린이날인 5월 5일부터 7일까지 영산포 홍어의 거리 일원에서 ‘제19회 영산포 홍어축제’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영산포 홍어 축제는 나주지역 최장수 음식문화축제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3년 만에 열린다. 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양치권)는 ‘홍어 맛보러 오소~’라는 정감 가는 사투리를 주제로 600년 전통 영산포 홍어만이 가진 ‘삭힘의 미

19회째 맞은 최장수 음식문화 축제...확 달라진 개막식 등 기대

어린이날 기념 열기구 탑승·홍어요리교실 등 체험 프로그램 다채

학을 3일간 다채롭게 선보인다. 이번 축제는 기존 영산강 둔치공원 일대에서 홍어 식당·상점이 즐비해있던 홍어의 거리로 주 무대 장소를 옮겼다. 상인들과 주민, 관광객이 한 곳에 어우러져 보다 다채로운 먹거리와 볼거리, 체험 거리를 즐길 수 있다. 개막식 행사에도 큰 변화를 줬다. 오후 6시 30분부터 전속 시인의 홍어 시 낭송과 신명나는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홍어의 거리 야외공연장에서 총 3막으로 구성된 개막 공연이 펼쳐진다. 바다의 어머니로 불리는 홍어 할머니가 등장해 관객들에게 600년 전통의 영산포 홍어 이야기를 구수하게 들려준다. 공연 중간에는 요리하는 성악가로 유명한 전주한 세프와 아나들이가 즉석에서 홍어 무침을 만들어 관객들에게 맛을 보여주는 이색 퍼포먼스가 예정되어 눈길을 끈다. 특히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해 하늘에서 영산강과 축제장 일대를 내려다볼 수 있는 열기구

탑승 체험을 축제 첫날 진행해 어린이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개막식에 앞서 최근 시집 ‘홍어’를 출간한 문순태 작가 시인회와 토크콘서트도 축제 첫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홍어 전시관에서 진행된다. 문 작가는 작품 소재인 홍어를 민초들의 고통과 눈물, 다양한 삶의 통찰에 빚낸다. 지역비하 의미로 쓰였던 홍어를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고 남도 대표 음식 홍어의 맛을 감각적으로 맛깔스럽게 형상화했다. 축제 둘째·셋째날 각각 오후 4시 30분부터는 관광객들이 다양한 홍어 요리를 맛볼 수 있는 ‘홍어요리교실’이 열린다. 홍어를 재료로 조리한 라면, 만두, 어묵 샌드위치, 커피 등 이전에는 없던 독특한 K-FOOD(케이푸드)를 맛보고 체험할 수 있다. 세대별 홍어 애호가를 선발하는 ‘홍어킹을 찾아라’, 홍어를 초특가에 구매할 수 있는 ‘홍어 깜짝경매’, ‘홍어 예쁘게 썰기’, ‘홍어 탐 쌍

기’ 등 관광객 중심의 체험프로그램이 3일 간 축제 현장에서 진행된다. 음식부스에서는 홍어삼합에 막걸리를 곁들인 홍탁, 홍어회, 찜, 홍어애국 등 다양한 홍어 음식을 판매한다. 자녀를 동반한 가족 관광객을 위한 ‘홍어 연 만들기’, ‘천연염색’ 체험 부스, ‘홍어 역사홍보관’도 운영한다. 축제 분위기에 흥을 더해줄 야간 무대 공연도 기대를 모은다. 특히 둘째 날 오후 6시부터 신나는 음악에 맞춰 스트레세를 날려버릴 가수공연(홍진주, 양진원)과 ‘5060 K-POP 홍어 디스코 파티’가 예정되었다. 가창력에 흥과 끼를 겸비한 나주시민 노래 자랑 준결승, 결승무대는 5일과 7일 각각 열린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수많은 음식이 차려진 잔치상에도 ‘홍어가 없는 잔치는 잔치가 아니다’고 말할 정도로 숙성 홍어는 전라도의 대표 음식”이라며 “맛의 깊이는 물론 건강에도 탁월한 영양적인 영산포 숙성 홍어 요리를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이번 축제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송준표기자

구례군, 2023년 상반기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

구례군이 4월 24일부터 5월 19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군정발전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군을 발전시키고 군정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모주제는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 생활인구 유지 ▶ 관광 및 군정발전 등 4개 분야다.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구례군 온라인 소통플랫폼 ‘구레소통마루’(https://policy.gurye.go.kr)에 아이디어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시상은 제출된 아이디어에 대해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6월 말 실시할 예정이다. 시상인원은 총 9명(금상 1, 은상 1, 동상 2, 장려상 5)이고, 총상금은 420만 원(금상 100만 원, 은상 70만 원, 동상 50만 원, 장려상 30만 원)이다. 또한 추첨으로 참여자 중 20명을 선정하여 치킨쿠폰도 제공할 계획이다. 구례=박진호기자

화순군, 고인돌 선사체험장 이색 체험 가득

고인돌축제 맞춰 30일까지 금·토·일·1일 4회 걸쳐 공연



화순군이 ‘2023년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 유적지 활용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선사체험장, 대신리 문화체험관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색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지로 각광 받고 있다. 화순=박순철기자

고인돌 선사체험장에서 ‘고인돌 선사마을 놀이터’를 주제로 고대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체험이 진행되며, 고고학자가 되어 발굴체험, 과거와 현재가 결합된 VR활쏘기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며, 일부 선사시대 도구를 만들어 가져가는 체험만 유료로 운영된다. 또한, 화순 고인돌축제에 발맞추어, 4월 21일~30일까지 금·토·일요일에 특별한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오후 1시·2시·3시·4시에 1일 4회에 걸쳐 ‘와구족이 사냥에서 돌아왔다’라는 주제로 선사시대 생활 재현 퍼포먼스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후 9시까지 야간 운영을 하고 있다. 대신리 문화체험장에서는 자연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친환경 설거지바 만들기 유료 체험과 고인돌 도서관을 운영한다. 화순=박순철기자

담양군 “몸에 좋은 토마토 안심하고 드세요” 토마토 소비 급감에 따른 농가 어려움 해소코자 시식 행사 열려



담양군은 지난 25일 담양리조트에서 최근 문제를 일으킨 특정 품종의 방울토마토로 인해 토마토 소비가 급감함에 따라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 촉진 시식 행사를 추진했다. 담양군에 따르면, 현재 문제가 없는 안전한 다른 품종의 토마토까지 소비 급감의 영향으로 산지 가격이 하락하고 유통 판로가 막히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담양군 내 토마토의 경우 이달부

터 5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출하돼 출하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담양군은 지속적으로 토마토 농가의 판로 확보, 소비 촉진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 시식 행사와 함께 직원 대상 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담양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길엽)에서도 토마토 소비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병노 군수는 “이번 행사 진행 품종은 산지 농협과 작목회를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안전한 품종”이라며 “비타민이 풍부하고 항산화, 면역력 향상, 혈당 개선, 고혈압·골다공증 예방 등 건강에 좋고 맛도 좋은 안전한 담양 토마토 소비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들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관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